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

- 외재적 응집성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Textbook Implementation Proc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Curriculum Standards: Focusing on the Extrinsic Cohesion between Curriculum and Textbooks

김 강 선(Kang-Sun Kim)*, 노 경 국(Kyung-Kuk Noh)**
신 순 아(Sun-Ah Shin)***, 이 민 수(Min-Su Lee)****
소 병 문(Byoung-Moon So)*****

< 목 차 >

I. 서론	IV. 학교급별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응집성 실현 양상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 검토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추후 교과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은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된 인정 교과서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는 형식이든 내용이든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의 개수 대응 수준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하나의 ‘주제’가 둘 안팎의 ‘중단원’으로 확산되는 ‘일대다’ 대응 수준을 맺는 반면, 고등학교는 둘 안팎의 ‘주제’가 하나의 ‘중단원’으로 수렴하는 ‘다대일’ 대응 수준을 맺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내용 체계인 초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은 학년급별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해 교과서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때 초등학교급 별을 고려한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 주제 명칭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사서교사,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rocess in which the curriculum standar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are implemented as textbooks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of textbook publication.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ccredited textbooks, it is essential for the curriculum standards and textbooks to align, both in form and content. 『Library and Information Life』(2011) are recognized textbooks systematically developed based on curriculum standards. To this end, the level of response to the numbers of ‘topic’ in the curriculum standard and the numbers of ‘middle unit’ in the textbook was identified. As a resul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xtbooks exhibited a “one-to-many” response level, where one topic spanned approximately around two middle units, while high school textbook tended to have a “many-to-one” response level, converging two topics into one middle unit. In the case of elementary schools, the curriculum standard follows a single content-system, whereas textbooks are developed separately for lower and higher-grade levels. Therefore, some adjustments, such as curriculum content and subject titles, need to be considered for each elementary school level.

KEYWORDS: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Curriculum, Teacher Librarian,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

- * 서울청계초등학교 사서교사, 공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교육학 박사과정(bompink@sen.go.kr) (제1저자)
- ** 수원여자대학교 도서관 사서(libnoh@swc.ac.kr / ISNI 0000 0005 0812 3029) (공동저자)
- *** 울곡중학교 사서교사(sunah72@korea.kr / ISNI 0000 0005 1120 0646) (공동저자)
- **** 포곡중학교 사서교사(ms0320@korea.kr / ISNI 0000 0005 0816 746X) (공동저자)
-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 학교도서관연구소 연구원(paul7493@kongju.ac.kr / ISNI 0000 0004 7783 7319)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3년 5월 23일 • 최초심사: 2023년 6월 4일 • 게재확정: 2023년 6월 19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2), 67-88,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2.202306.67>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교과 교과서는 단위학교에서 실현되는 교과 교육의 기본서이자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안내서 지위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수활동의 확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는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과서 발행·인정하는 체계에 최소로 관여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런 흐름이 옳으나 그르냐의 가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교육부, 2017). 교과서라 함은 1교시에서 7교시(고등 기준)에 이르는 고정된 시간표에서 교과 교사가 가르치는 서책형 저작물을 통칭하며,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개발되고 과목 간의 명칭 경계가 분명하게 구획된 것이 특징이다.

비교수 교과 교사군 가운데 사서교사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의 교육을 통하여 단위학교 내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원이다. 하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 미편제에 따른 수업 시수 확보의 어려움(이병기, 2007)과 사서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교육적 역할 참여 기회의 부족(함명식, 2008), 교과교사와 협력수업의 어려움(소병문, 송기호, 2018) 등 현실적으로 교육적 역할을 다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보활용교육을 내용으로 한 인정 교과서인 『정보와 매체』(1996) 1책, 『정보와 도서관』(2001) 3책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 두 종의 교과서는 정보활용교육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내에 반영의 어려움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몰이해, 양성과정 내 사서교사의 학습 부족 등의 이유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였다(김성준, 2011,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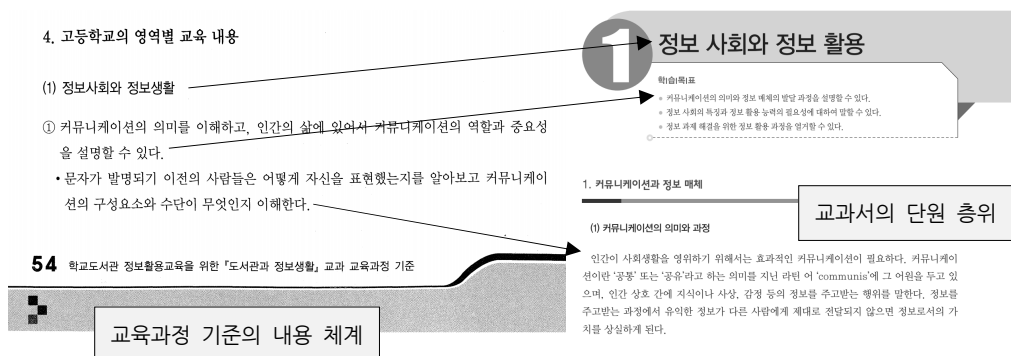
이후 체계적인 교과서의 개발과 안정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전문단체와 학교도서관계 수준에서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교과서 개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인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을 2007년에 개발·발행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기준에 근거하여 초등 2책, 중등 2책으로 구성된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이 교과서는 전문단체 수준이지만 교육과정 기준에 근거를 두고 개발한 점과 초등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세분해 모든 학교 급별을 맞춰 발행한 점, 그리고 현직 사서교사가 교과서 집필진으로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이유에서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는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교과서의 후속 개발은 이 교육과정 기준을 전거로 삼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추가 등과 같이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시(이병기, 2019; 박주현, 강봉숙, 이병기, 2021)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2007)이 『도서관과 정보생활』(2010) 4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에 맺어지는 내용상의 일치 수준을 분석하는 데 있다. 교과 교과서의 개발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시작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기반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같은 영역과 같은 단위라면 내용상으로 일치해야 한다. 즉, 교과서 편찬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체계가 해당 교과서 단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은 교과는 대개 교육청 수준의 인정 교과서로 발간되거나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개발된다. 『도서관과 정보생활』(2010)은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근거해 인정 교과서 개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 실현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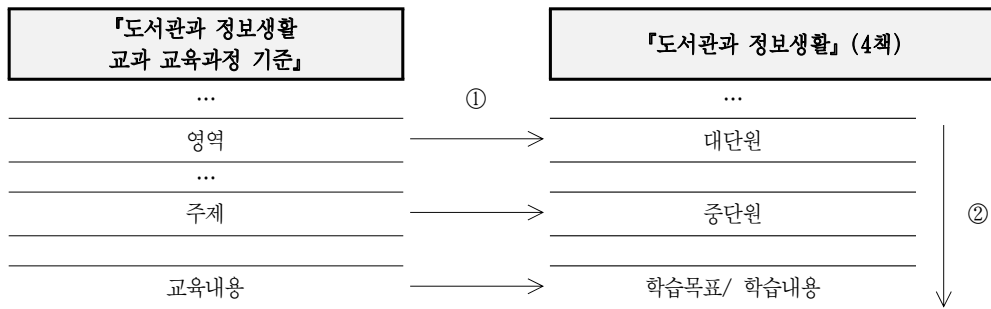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실현되는 양상을 외재적 응집성(extrinsic cohension)이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외재적 응집성은 통일성(cohence)과 함께 텍스트 언어학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응집성은 형태, 형식의 연결과 일치를 뜻하고, 통일성은 내용이나 단어의 의미 관계를 뜻한다(이순영 외, 2015, 169-170). 이 연구는 서로 다른 두 대상[外在的]인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제목과 목차 위계 형식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응집성(conhension)이란 용어를 차용하였다(〈그림 2〉의 ①). 이와 대조가 되는 통일성은 교과서 내부에서 의미상 관계의 일치와 관련이 있다. 내재적 통일성(intrinsic cohence)이란 교과서 한 단위에서 [內在的] 동일한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이 의미상으로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뜻한다(〈그림 2〉의 ②).

〈그림 1〉은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2007, 54)와 교과서(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 2011, 3)를 병치하여



〈그림 1〉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예시

비교한 것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주제, 내용요소, 교육내용(이상 화살표 순서)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교과서의 단원 층위는 중단원 명칭, 학습목표, 학습내용으로 대비된다. 이렇게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를 대비하여 외재적 응집성을 맺는 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모형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통일성 관계 모형도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류는 국가 수준의 교과서 검인정 심의과정 대상이 아니기에 외재적 응집성을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

정보활용교육 내용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제 필요성을 제안한 이병기(2005)를 시작으로, 정보 활용교육 관련 교과서의 개발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교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김성준, 2011; 송기호, 2011; 이병기, 2007).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의 필요성은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기대와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강봉숙, 2018; 함명식, 2008), 문헌 정보학계와 학교도서관 관련 모임 등은 교육과정에 근거한 체계적인 교과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도서관협회는 한시적 기구로서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인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2007)을 개발한 후 출판하였다. 이 교육과정 기준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을 참고해 교육목적(목표), 교육 내용(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체계를 담고 있다. 또한 정보활용교육은 일반

교과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과 교사와 사서교사 간의 협력에 의한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교육과정 기준에 담은 것도 특징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이하 교육과정 기준)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정보과제를 설정하고, 정보탐색전략을 수립하여 정보에 접근하며, 정보의 내용을 분석, 해석, 평가하고 정보를 새롭게 조직, 창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표현 전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교과 교과서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2007, 14). 교육과정 기준에서 제시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의 내용 체계는 학교급별로 ‘영역> 주제> 내용 요소> 교육내용’의 순서로 층위를 이룬다. 최상위 층위인 ‘영역’은 학교급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공통 내용이며 5개로 구성되었다. 다음 층위인 ‘주제’와 ‘내용요소’는 학교급별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수가 늘어나 내용이 심화되는 계열성을 이룬다. 교육과정 기준에서 공통으로 공유하는 최상위 층위인 ‘영역’에 대응되는 학교급별 ‘주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학교급별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의 내용 체계 (영역과 주제)

영역	주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 도서관과 정보활용	1. 도서관과 친구하기	1. 학교생활과 도서관	1. 정보사회와 정보생활 2. 도서관과 정보생활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과 평생학습
	2. 도서관과 정보활용	2. 정보과제 해결과 정보생활	4. 정보활용과정 5. 도서관 이용과 윤리 6. 정보자료의 이용과 위생
II. 정보탐색과 접근	1. 나만의 문제 만들기	1.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구 파악하기	1. 정보요구 확인 2. 정보탐색전략 수립 3. 참고자료 이용
	2.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	2. 정보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 찾기	4. 온라인 목록과 인터넷 정보검색 5. 탐색결과와 적합성 판단
III. 정보분석과 해석	1. 정보 읽고 이해하기	1. 예측하며 읽기 2. 비판하며 읽기	1. 정보분석과 해석의 과정 2. 정보자료의 구성요소 3. 독서활동과 전략
	2. 정보 정리하기	3. 요약하며 읽기	4. 영상자료의 시청 5. 전자자료와 브라우징
IV.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 표현하기	1. 정보종합 및 조직하기 2. 정보 표현하기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의미 2. 정보종합 및 조직 방법 3. 정보자료의 인용과 참고문헌작성 4. 정보표현과 전달전략
	2. 정보 평가하기	3. 정보활동 평가하기	5. 정보매체와 표현의 실제 6. 정보활동 평가와 반성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공정한 정보 활용	1. 정보와 저작권	1. 민주사회와 지적자유 2. 저작권 존중과 공정한 이용
	2. 정보 윤리	2.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3. 인터넷과 정보윤리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2007, 15-18)를 정리함

교육과정 기준은 교과서 개발을 염두에 두어 내용 체계와 교육내용으로 분리하여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 체계는 ‘영역> 주제> 내용 요소’를 표로 구성해 제시된 반면(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2007, 15-18), 교육내용은 ‘영역> 주제> 교육내용’의 층위로 구성되었다(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2007, 42-74). 특히,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은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응이 되며,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장(章)을 달리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용요소와 교육내용으로 구분된 교육과정 기준을 층위에 따라 통합해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의 층위

영역	주제	내용 요소	교육내용
I. 도서관과 정보활용	1. 도서관과 친구하기	(1) 초등학교 생활과 도서관	①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관인 도서관이 초등학교 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학습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도서관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과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 • 도서관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와 역할을 이해하고 도서관에 친근함을 갖는다.

2.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2007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이병기(2005; 2007) 등과 같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기존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교과서 개발은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 관중 부회(部會) 조직인 한국학교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급별 현직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는데에서 시작되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주된 내용으로 상정하였다. 즉, 정보활용관련 교과서로서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제 단계를 교과 내용 체계로 구성하고, 학습자가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배우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보활용능력은 정보문제 해결모형을 주된 학습 내용으로 설정된다. 정보문제 해결모형은 연구자마다 그 단계 구분이 다르더라도 대개 정보 접근-분석-적용-평가의 단계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 체계는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정보문제 해결모형(김성준, 2011; 임정훈, 2023; 정진수, 2014)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음을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 체계는 정보문제 해결모형의 공통 단계(<표 3>의 영역 II~IV)를 핵심으로, 정보활용과 관련된 일반론(<표 3>의 영역 I과 V)이 모형의 전후 영역으로 더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내용 체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는





정보활용능력의 신장과 함께 다른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과서의 성격을 갖는다(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2007, 13). 또한 기존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문헌정보학의 교육을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김성준, 2011, 291).

〈표 3〉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과 정보문제 해결모형 비교

영역	Irving의 9단계 (1985)	Kuhlthau의 ISP 모형 (1988)	Eisenberg의 Big 6 Skills (1990)
I. 도서관과 정보활용			
II. 정보탐색과 접근	1. 과제정의하기	1. 과제 시작	과제정의
	2. 정보원 선정하기	2. 주제 선정	2. 탐색 전략 수립하기
	3. 정보원 찾기	3. 주제 관련 정보 조사	3. 정보 탐색 및 접근하기
	4. 선택하기		
III. 정보분석과 해석	5.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4. 관점 구조화	4. 정보 해석하기
	6. 기록하기		
	7. 의미 만들기		
IV. 정보종합과 표현	8. 과제 표현하기	6. 표현	5. 정보종합하고 표현하기
	9. 과정 평가하기	7. 평가	6. 평가하기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은 교육과정 기준을 토대로 정보에 대한 탐색 및 접근능력, 분석 및 해석능력, 종합 및 표현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고 학교급별 수준을 고려해 초등(저), 초등(고), 중, 고등 4책으로 개발되어 서울시교육청 인정제 심의를 통과해 인정제 교과서로 출간되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의 학교급별 내용 체계(목차)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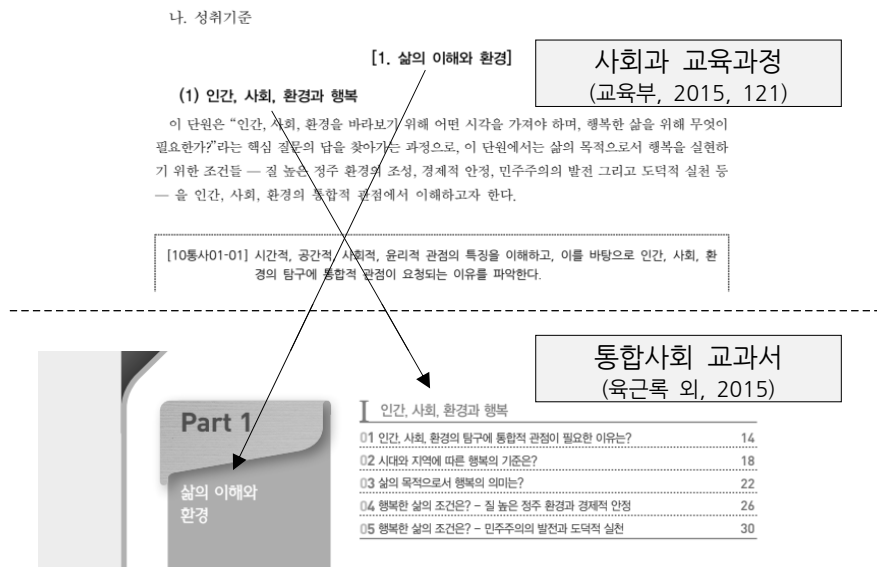
〈표 4〉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종류와 내용 체계

초등학교 (저)	내용 체계 (대단원)	초등학교(고)	(대단원)
	I. 도서관은 내친구 II. 책은 내친구 III. 정보야, 놀자 IV. 즐겁고 신나는 독서생활 V. 다양한 독서표현 VI. 올바른 정보생활		I. 평생학습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 II. 도서관 자료의 활용 III. 정보과제 해결 따라 하기 IV. 정보 과제 해결 능력 적용하기 V. 스스로 책임지는 정보 생활
중학교	내용 체계 (대단원)	고등학교	내용 체계 (대단원)
	I. 도서관과 정보생활 II.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III. 정보분석과 이해 IV. 정보 종합과 표현 V. 미래의 정보 생활		I. 도서관과 정보생활 II.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III. 정보분석과 이해 IV. 정보종합과 표현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Ⅲ.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 검토

1.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실현

교과서의 개발은 대상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시작된다. 대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편제된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영역과 하위 주제가 해당 교과 교과서의 대단원 명칭과 하위 단원의 명칭이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인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어떻게 사회과 ‘통합사회’ 교과서의 대단원과 중단원으로 대응되는가는 <그림 3>과 <표 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교과서 실현 예시

<표 5>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 단원명 비교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121-136)		통합사회 (육근록 외, 2015)	
성취기준		대단원	중단원
1. 삶의 이해와 환경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 삶의 이해와 환경	I.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2) 자연환경과 인간		II. 자연환경과 인간
	(3) 생활공간과 사회		III. 생활 공간과 사회
2. 인간과 공동체	(4) 인권 보장과 헌법	2. 인간과 공동체	IV. 인권보장과 헌법
	(5) 시장경제와 금융		V. 시장 경제와 금융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VI. 사회 정의와 불평등
3. 사회 변화와 공존	(7) 문화와 다양성	3. 사회 변화와 공존	VII. 문화와 다양성
	(8) 세계화와 평화		VIII. 세계화와 평화
	(9)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IX.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그림 3〉과 〈표 5〉와 같이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의 단원 정보 사항이 대상 교과 교과서의 내용 체계(단원 목차)와 일치하는 것을 두고 외재적 응집성을 맺은 것으로 파악한다. 〈표 5〉와 같은 사회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의 일치 사례는 육근록 외(2015)를 제외한 남은 『통합사회』 5종 교과서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는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과 교과 교과서 내용 체계의 일대일 대응은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이라는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과 검정 기준 때문이다(교육부, 2017, 75). 즉, 교과 교과서는 해당 내용 체계(단원 목차)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응집성을 맺어야만 검정에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같은 방법으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외재적 응집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기준은 앞선 〈표 5〉와 같이 최상위 층위인 ‘영역’을 공통으로 학교급별에 따라 내용이 심화되는 계열성을 맺는다(〈표 1〉 참고).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기준 가운데 ‘영역 1. 도서관과 정보활용’을 대상으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이 〈표 5〉와 같이 일대일 대응의 외재적 응집성을 맺는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교육과정 기준 ‘영역 1’에 대한 학교급별 교과서 단원으로의 실현 양상

영역 1 도서관과 정보활용	교육과정 기준 (주제)		교과서 (중단원)	
	초등학교	1. 도서관과 친구하기 2. 도서관과 정보활용	초등 (저)	1. 도서관은 보물창고 2. 나는 도서관 탐험가 3. 도서관 예절을 지켜요
중학교	1. 학교생활과 도서관 2. 정보과제 해결과 정보생활	초등 (고)	1. 평생 학습 사회와 도서관 2. 인류 발전의 원동력 도서관 3. 독서생활과 도서관	
고등학교	1. 정보사회와 정보생활 2. 도서관과 정보활용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과 평생학습 4. 정보활용과정 5. 도서관 이용과 윤리 6. 정보자료의 이용과 위생		1. 학교생활과 도서관 2. 우리학교 도서관 탐방 3. 학교 도서관의 여러 가지 정보원 4. 학교도서관의 이용 예절	
			1. 정보 사회와 정보 활용	
			2. 학교 도서관 이용과 정보 활용	
			3. 지역 사회의 정보 환경	

〈표 6〉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1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가 교과서의 ‘중단원’으로 실현되는 대응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단순 계량적 접근만 확인하더라도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1은 학교급별 교과서 대단원 1의 하위 중단원과 ‘일대일’ 대응(〈표 5〉와 비교)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저), (고)와 중학교는 교육과정 기준에 비해 교과서가 세분화되는 ‘일대다’로 확산되는 반면, 고등학교는 세분화된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통합되

는 '다대일'로 수렴되는 것이 특징이다. <표 6>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1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을 대응시켰을 뿐인데 '일대일'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단순 산술적 개수뿐만 아니라 표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역을 확대해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을 상세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7> 학교급별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간 영역별 대응 수준 비교

교육과정 기준				교과서		응집성	
영역		주제	교육내용	중단원	학습목표	주제 Vs 중단원	교육내용 Vs 학습목표
I. 도서관과 정보활용	초	2	5	저학년: 3	6	1:多	1:多
	중	2	5	고학년: 3	6	1:多	1:多
	고	6	15	4	8	1:多	1:多
II. 정보탐색과 접근	초	2	4	3	8	多:1	多:1
	중	2	4	저학년: 3/3 ¹⁾	6/ 6	1:多	1:多
	고	5	20	고학년: 4	8	1:多	1:多
III. 정보분석과 접근	초	2	7	4	7	1:多	1:多
	중	3	9	3	8	多:1	多:1
	고	5	16	4	10	1:多	多:1
IV. 정보종합과 표현	초	2	6	4	10	多:1	多:1
	중	3	8	저학년: 3	6	1:多	1:1
	고	6	19	고학년: 3	6	1:多	1:1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초	2	4	3	6	1:1	多:1
	중	2	4	5	13	1:多	多:1
	고	3	6	저학년: 3	6	1:多	1:多
				고학년: 3	6	1:多	1:多
				3	5	1:多	1:多
				3	9	1:1	1:多

<표 7>은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간의 대응 항목의 개수를 비교한 후 그 응집성 수준을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대비 교과서가 세분하게 적용된 '일대다'로 응집성을 맺는다. 즉, 영역별 교육과정 기준에서 제시한 '주제'는 교과서로 실현될 때에 다수의 '중단원'으로 그 교육 내용을 세분화해 상세하고 심도있게 다룬다는 의미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주제가 누락되지 않고 교과서 중단원에 모두 실현됨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외재적 응집성 확인은 계량적 개수의 일치뿐만 아니라 내용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은 학교급별과 무관하게 5개 영역으로 제시되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는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을 참고했을 때 대단원 2(책은 내 친구)와 3(정보야, 놀자)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2. 정보 탐색과 접근(나만의 문제 만들기,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에 대응된다. 특히 대단원 2는 인쇄자료로서 책 전반을 상세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에 처음 접하는 학교도서관 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이용자 교육 성격이 짙다.

2.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 실현 양상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실현되는 것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교과서 단원으로 외재적 응집성을 맺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만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응집성 수준은 앞선 <표 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아 ‘통합사회’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을 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층위를 대상으로 응집성 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과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대응하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통하여 응집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은 ‘영역’ 주제 <내용 요소> 교육내용의 층위로 세분할 수 있다 (<표 2> 참고). 또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는 ‘대단원/ 중단원’으로 구성되며, 흔히 교과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중단원은 다시 하위 단원인 소단원을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으로 층위를 이룬다.

교육과정 기준에서 ‘교육내용’은 가르칠 내용을 명제문으로 진술한 것으로, 교과서에서는 학습 목표와 대응이 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기준의 초등 영역 1-1에 해당하는 ‘기준’은 ‘도서관과 친구하기’인 반면, 하위 ‘교육내용’은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관인 도서관이 초등학교 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학습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도서관을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다. 교과서의 ‘학습 목표’ 역시 명제문으로 진술되므로 ‘교육내용’과 ‘학습목표’ 간의 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 ‘중단원’이 계량적 개수를 기준으로 일대일로 대응되는 중학교 ‘영역 IV. 정보종합과 표현 (<표 7>의 음영)’을 대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외재적 응집성 예시 1

교육과정 기준	영역	주제	교육내용
	IV. 정보종합과 표현	3. 정보활동 평가	① 정보문제 해결과정에서 절차상의 장단점이나 어려움, 정보원 활용상의 특징 등을 기록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② 정보문제 해결결과를 주어진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학습목표
	IV. 정보 종합과 표현	3. 정보활동 평가하기	- 정보 과제 해결 단계를 되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다.

<표 8>은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이 ‘일대일’ 대응의 응집성을 보인 예시로, 하위 ‘교육내용’과 ‘학습목표’를 더하여 내용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교과서의 ‘학습목표’의 내용을 포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응집성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표 7>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단순 계량적 개수의 대응이 '일대다'를 이루기 때문에 '교육내용'과 '학습목표' 간 내용의 일치(유사성) 여부를 통하여 외재적 응집성을 판단해야 한다.

<표 9>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외재적 응집성 예시 2

교육과정 기준	영역	주제	교육내용
	Ⅲ. 정보분석과 해석	1. 예측하며 읽기	① 정보원의 제목을 보고 담겨진 정보의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다. ② 정보원의 차례를 읽고 담겨진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익혀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익힌다. ③ 정보원이 담고 있는 내용의 뒷이야기를 예측해 봄으로써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추론하는 방법을 익힌다.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학습목표
	Ⅲ. 정보 분석과 해석		1. 정보분석과 이해와의 개념
2. 인쇄자료의 분석과 이해			- 자료의 서명과 차례를 통하여 내용을 예측하고 뒷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 자료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다. - 중심 내용을 요약하며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9>는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이다. 교육과정 기준은 '예측하며 읽기'를 주제로 설정했지만 교과서의 중단원은 '정보분석의 이해와 개념'이 대응되므로 의미상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어 하위 '교육내용'과 '학습목표'를 더하여 내용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과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비교하면 오히려 중단원 '인쇄자료의 분석과 이해'에 내용 측면에서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에 대응되는 응집성 수준을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이를 표로 정리한 후 시각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10>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 분석 표현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중학교)	
영역	주제		중단원	대단원 ²⁾
Ⅲ. 정보 분석과 해석	1. 예측하며 읽기	●	1. 정보 분석과 이해의 개념	Ⅲ. 정보 분석과 이해
	...		2. 인쇄자료의 분석과 이해	
Ⅳ.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 종합 및 조직하기	●	1. 정보 종합하기	Ⅳ. 정보종합과 표현
	

2)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와 어떻게 응집성을 맺는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우측 교과서 층위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교과서의 층위는 대단원/ 중단원으로 구분되지만 <표 6>과 같이 직접적인 응집성 비교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이 직면하도록 편집한 후 그 응집 관계의 반영 상황을 선으로 표현하였다.

IV. 학교급별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응집성 실현 양상 분석

1. 초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도서관과 정보생활'과 같은 인정 교과서는 학년이 아닌 학교급별을 특정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는 1학년때 배우든 3학년때 배우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신축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초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은 단일 학교급별로 제시된 반면 교과서는 학년을 저학년(1학년~3학년)과 고학년(4학년~6학년)으로 개발되었다. 초등학교 학령 연한이 6년이란 점과 인지·정서·신체 등 성장 발달의 편차가 중등에 비하여 크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학년과 고학년 같이 2단계 수준으로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 실현 양상은 <표 10>과 같이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이 교과서의 '학습목표'에 일정 수준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외재적 응집성을 판단하였다(<표 8>, <표 9> 참고). 먼저 초등(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관계를 판단한 후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시각화의 방법은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에 대응되는 교과서의 '중단원'을 같은 선상에 두고, 교육내용과 학습목표의 내용 부합 여부에 따른 응집성 여부를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초등(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분석한 후 관계성을 표현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초등(저)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초등(저)	
영역	주제	중단원	대단원
I. 도서관과 정보활용	1. 도서관과 친구하기	1. 도서관은 보물 창고	1. 도서관은 내 친구
	2. 도서관과 정보활용	2. 나는 도서관 탐험가 3. 도서관 예절을 지켜요	
II. 정보탐색과 접근	1. 나만의 문체 만들기	1. 책은 내 친구	2. 책은 내 친구
	2.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	2. 책을 살펴보아요 3. 자료는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III. 정보분석과 해석	1. 정보읽고 이해하기	1. 어디에서 정보를 찾나요?	3. 정보야, 놀자
	2. 정보 정리하기	2.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3. 정보야, 나랑 놀자	
		1. 책을 올바르게 읽어요 2.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3.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요	
IV.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표현하기	1. 말과 글로 표현해요	4. 즐겁고 신나는 독서 생활
	2. 정보평가하기	2. 그림으로 표현해요 3. 몸짓으로 표현해요	
		1. 함께 나누는 정보 생활 2. 저작권을 보호해요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공정한 정보활용	1. 함께 나누는 정보 생활	5. 다양한 독서표현
	2. 정보윤리	2. 저작권을 보호해요 3.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해요	

초등(저)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외재적 응집성 관계는 단순한 계량적 수치를 비교해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이 5개인 것에 비해 이에 대응되는 교과서의 '대단원'은 6개인 점을 통하여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상세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수의 차이는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III. 정보분석과 해석'이 교과서의 '대단원 3. 정보야 놀자'와 '대단원 4. 즐겁고 신나는 독서 생활'로 상세 구분 후 확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교육과정 기준에 없는 '교육내용'이 교과서 독립 대단원으로 실현되었다. 교과서의 '대단원 2. 책은 내 친구'는 3개의 중단원과 6개의 '학습목표'(교과서에서는 '이런 것을 배워요'에 해당)로 구분된다. 해당 학습목표는 책의 역사, 책 만들기, 책의 구성, 책의 서지사향, 한국십진분류 등을 내용으로 한다. 대단원 2는 학교도서관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등(고)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분석한 후 관계성을 표현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초등(고)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초등(고)	
영역	주제	중단원	대단원
I. 도서관과 정보활용	1. 도서관과 친구하기	● 1. 평생 학습 사회와 도서관	1. 평생 학습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
	2. 도서관과 정보활용	● 2. 인류 발전의 원동력 도서관 ● 3. 독서 생활과 도서관	
II. 정보탐색과 접근	1. 나만의 문제 만들기	● 1. 도서관 자료의 정리 규칙	2. 도서관 자료의 활용
	2.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	● 2. 인쇄 자료 활용하기 ● 3. 영상 자료 활용하기 ● 4. 전자 자료 활용하기	
III. 정보분석과 해석	1. 정보읽고 이해하기	● 1. 정보 과제 해결 능력 이해하기	3. 정보 과제 해결 따라하기
	2. 정보 정리하기	● 2. 나만의 과제 만들기 ● 3. 정보원 가려내기 ● 4. 정보 읽고 정리하기 ● 5. 정보 표현하고 평가하기	
IV.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표현하기	● 1. 정보 과제 해결 과정 익히기	4. 정보 과제 해결 능력 적용하기
	2. 정보평가하기	● 2. 학습 과제 해결에 적용하기 ● 3. 생활 과제 해결에 적용하기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공정한 정보활용	● 1. 올바른 정보 활용하기	5. 스스로 책임지는 정보생활
	2. 정보윤리	● 2. 저작권 바로 알기 ● 3. 정보 윤리 실천하기	

초등(고)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과 교과서의 '대단원'의 개수는 동일하다. 단순한 계량적 수치만 두고 볼 때는 동일 범주에서 응집성 관계가 맺어질 최소 조건은 충족되었다. 하지만 동일 범주 선상에서 같은 위계로 응집성을 맺는 건 '영역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과

‘대단원 5. 스스로 책임지는 정보생활’ 뿐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4개의 영역(또는 대단원)은 동일 범주 선상에서 응집성 관계를 맺거나 또는 인접 범주에 걸쳐 응집성 관계를 맺는다.

이와 같은 혼선은 교과서 ‘대단원 4. 정보 과제 해결 능력 적용하기’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고)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대단원 4는 ‘대단원 3. 정보 과제 해결 따라하기’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학습자가 직접 적용하는 단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대단원 4의 중단원은 모두 ‘나만의 과제 만들기-정보원을 찾아 가려내기-정보읽고 정리하기-정보표현하고 평가하기’로 구성되었다. 동일한 학습내용에 대하여 대단원 3은 예시형 이론으로, 대단원 4는 적용형 실제로 나누어 단원을 구성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교육과정 기준이 같거나 다른 범주 선상에서 응집성을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이 교과서의 ‘학습목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그 관계성을 시각화하였다.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중학교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중)	
영역	주제	중단원	대단원
I. 도서관과 정보활용	1. 학교생활과 도서관	1. 학교생활과 도서관	I. 도서관과 정보생활
	2. 정보과제 해결과 정보생활	2. 우리 학교 도서관 탐방	
		3. 학교 도서관의 여러 가지 정보원	
		4. 학교 도서관의 이용예절	
II. 정보탐색과 접근	1.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구 파악하기	1. 정보 과제 해결과 정보 생활	II. 정보 과제와 정보 탐색
	2. 정보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찾기	2. 정보 과제 정하기와 정보 요구 파악하기	
		3. 정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 탐색하기	
		4. 정보 탐색 과정의 종합적 이해	
III. 정보분석과 해석	1. 예측하며 읽기	1. 정보 분석의 이해와 개념	III. 정보 분석과 이해
	2. 비판하며 읽기	2. 인쇄자료의 분석과 이해	
	3. 요약하며 읽기	3. 영상자료의 분석과 이해	
		4. 전자자료의 분석과 이해	
IV.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 종합 및 조작하기	1. 정보 종합하기	IV. 정보 종합과 표현
	2. 정보 표현하기	2. 정보 표현하기	
	3. 정보활동 평가	3. 정보활동 평가하기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정보와 저작권	1. 평생학습과 도서관	V. 미래의 정보생활
	2.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2. 정보와 저작권	
		3. 정보 사회와 정보 윤리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명칭을 교과서의 '대단원' 명칭에 반영하였다. 물론 영역 명칭과 대단원 명칭이 모두 일치하지 않고 일부 단어가 바뀐 사례도 있다. 교육과정 기준에서의 '정보활용'은 교과서에서 '정보생활'로 조정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교육과정 기준의 '정보 접근', '정보해석'은 교과서에서는 각각 '정보탐색', '정보분석' 정도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의미를 두고 볼 때 큰 차이를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동일 범주 선상에서 '일대다' 또는 '일대일'의 응집성을 맺는다. 초등(고)의 사례처럼 인접 범주에 걸쳐 응집성을 맺는 예시는 1건에 불과하다.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I 과 II는 동일 범주 선상에서 '일대다' 대응의 응집성을 맺는다. 이는 교육과정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중단원 개수를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IV와 V는 교과서 대단원으로 실현될 때 '일대일' 대응의 응집성을 맺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영역 III의 모든 '주제'는 대단원 III의 '인쇄자료 분석과 이해'로 수렴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영역 III의 주제가 예측하며, 비판하며, 요약하며 읽기와 같이 주로 인쇄자료에 적용되는 읽기 전략(정보분석과 해석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가 개정될 시기인 2000년대 중반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상자료, 전자자료를 손쉽게 제작·편집하거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갖춰진 시기는 아니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이 교과서의 '학습목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그 관계성을 시각화하였다.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중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과 교과서 '대단원'의 명칭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대단원의 계량적 수치 대응이 '다대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급별과 차이가 난다.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이 5개 영역과 25개 주제로 제시된 반면, 교과서는 5개 대단원과 18개 중단원으로 이루어졌다.

초등,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개수보다 교과서의 대단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것과 반대이다. 오히려 교육과정 기준이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것이다. 교육과정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되었다고 교과서로의 실현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중복된 것임을 볼 때 결국 교육과정 기준은 모두 교과서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동일 범주 선상에서 ‘다대일’ 또는 ‘일대일’의 응집성을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고)	
영역	주제	중단원	대단원
I. 도서관과 정보활용	1. 정보사회와 정보생활	1. 정보 사회와 정보 활용	I. 도서관과 정보생활
	2. 도서관과 정보생활	2. 학교도서관 이용과 정보생활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과 평생학습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	
	4. 정보활용과정		
	5. 도서관 이용과 윤리		
	6. 정보자료의 이용과 위생		
II. 정보탐색과 접근	1. 정보요구 확인	1. 정보 과제 파악과 탐색전략 수립	II. 정보 과제와 정보 탐색
	2. 정보탐색전략 수립	2. 매체별 정보 탐색	
	3. 참고자료 이용	3. 탐색 자료의 평가와 관리	
	4. 온라인 목록과 인터넷 정보검색		
	5. 탐색결과와 적합성 판단		
III. 정보분석과 해석	1. 정보분석과 해석의 과정	1. 정보분석과 이해의 배경	III. 정보 분석과 이해
	2. 정보자료의 구성요소	2. 인쇄자료와 독서	
	3. 독서활동과 전략	3. 영상자료와 시청	
	4. 영상자료의 시청	4. 전자자료와 브라우징	
	5. 전자자료와 브라우징		
IV.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의미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이해	IV. 정보 종합과 표현
	2. 정보종합 및 조직 방법	2. 글에 의한 정보 종합과 표현	
	3. 정보자료의 인용과 참고문헌작성	3. 말에 의한 정보 종합과 표현	
	4. 정보표현과 전달전략	4. 시각적 정보 종합과 표현	
	5. 정보매체와 표현의 실제	5. 정보활동평가	
	6. 정보활동 평가와 반성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민주사회와 지적자유	1. 정보윤리와 사회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2. 저작권 존중과 공정한 이용	2. 저작권 존중과 공정한 이용	
	3. 인터넷과 정보윤리	3. 인터넷과 정보윤리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인 ‘도서관과 정보생활’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는 『정보와 매체』(1996), 『정보와 도서관』(2002), 그리고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 등 3종이 개발되었으며, 그 가운데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근간으로 모든 학교급별을 대상

으로 개발된 인정 교과서이다. 다만, 국가 수준의 검인정 체계에 준하는 교과서 개발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도서관과 정보생활’이 기획, 개발된 점에서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 반영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형식, 내용이 일치하는 관계를 외재적 응집성이 실현된 관계로 보고, ‘도서관과 정보생활’ 4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 실현 양상은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 개수와 교과서의 ‘중단원’ 개수의 대응 수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대상 교과서로 실현될 때에 성취기준과 중단원 사이에 ‘일대일’ 대응을 맺는 것을 비교 전거로 제시할 수 있다(<그림 3>과 <표 5> 참고). 이에 따라 ‘도서관과 정보생활’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실현될 때는 대개 ‘일대다’의 대응 관계로 나타났다(<표 7> 참고). 이와 같은 ‘일대다’의 대응 관계는 교육과정 기준에서 제시한 ‘주제’가 교과서로 실현될 때에는 둘 이상의 ‘중단원’으로 상세하고 심도있게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거꾸로 ‘다대일’로 대응을 맺는 단원이 많은 것으로 구분된다. 고등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 체계가 상세하게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일대다’의 대응 관계를 맺는 ‘도서관과 정보생활’ 중등학교급별은 중학교의 영역 IV와 고등학교 영역 V(<표 13>, <표 14>의 음영)와 같이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맺도록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단원 층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기준의 개발 이후 교과서가 집필되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은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중등 2종은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이 동일 범주 안에서 ‘일대다’ 또는 ‘다대일’로 응집성을 보이는 반면, 초등 2종의 응집성 양상은 동일 범주 기준을 넘어 ‘일대다’ 대응을 맺을 정도로 혼재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기준은 초등학교 급별을 고려한 내용 체계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은 초·중·고로 구분했지만, 실제 초등 교과서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더 구분해 발행한 점과 초등 교과서 2종의 ‘대단원’ 명칭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명칭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저) 교과서는 교육과정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제’가 독립된 ‘단원’으로 실현되었다. 해당 단원의 내용은 책(인쇄자료)의 역사, 구성, 서지사항, 십진분류 등 초등학교 입학 후 처음 맞이하는 학교도서관에 관한 이용자 교육 관련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초등학교 급별을 고려한 교육과정 기준의 주요 명칭 체계의 조정과 초등 저학년 수준에 적합한 교육내용 개발 등을 반영해야 한다.

교과서 개발은 대상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배경과 축적된 선행연구, 많은 예산과 집필진이 필요한 거대 사업이다. 현재 ‘도서관과 정보생활’을 포함한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의 개발은 1996년 『정보와 매체』의 출판 이후 3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교과서 개발 경험과 학교도서관 설치

수 대비 부족한 사서교사와 연구진 등을 고려할 때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낸 것이다. 특히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을 근간으로 개발된 최초의 교과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 교과서의 후속 개발을 위하여 이병기(2019)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계로의 수용과 거시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고, 박주현, 강봉숙, 이병기(2021)는 기존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병문(2022)은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 3종의 내용 요소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여 후속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살펴본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개정 방향까지 더한다면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후속 교과서 개발에 충분한 검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사 내용〉

이 연구는 2022년 11월 갑작스런 병마로 세상을 떠난 김강선 선생님(서울용답초등학교 사서교사)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동학들(공동저자 3인)이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발표한 논문입니다. 고인을 포함한 박사과정 4인은 2022학년도 1학기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문헌정보교육방법론’ 강의를 통하여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 교과서 4책의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 수준을 분석하고 함께 발표, 토론하며 연구하였습니다. 그 직접적인 성과가 이 연구의 4장입니다. 김강선 선생님은 20년 남짓한 사서교사로 재직하면서 우수한 현장 사례 개발, 강의 연수 진행, 활동 자료 공유 등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사서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 성장을 위하여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문학교육을 주제로 석사과정을 한 번 더 마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건강의 악화로 우리 곁을 떠났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고 문 헌

- 강봉숙 (2018). 교육격차에 따른 정보활용능력 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 서비스 사례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307-329.
-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I. 세종: 교육부.
- 김성준 (2011).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271-292.
- 박주현, 강봉숙, 이병기 (2021).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 내용 체계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1), 229-254.
- 소병문 (2022).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류의 내용 요소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25-44.
- 소병문, 송기호 (2018). 중등 교사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55-75.
- 송기호 (2011).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범 교육과정으로서의 정보 활용 능력 위상 강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29-50.
- 육근록 외 (2015). 통합사회. 서울: 동아출판.
- 이병기 (2005).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98-100.
- 이병기 (2007).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의 제도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443-462.
- 이병기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49-68.
- 이순영, 최숙기, 김주환, 서혁, 박영민 (2015). 독서교육론. 서울: 사회평론.
- 임정훈 (2023) 정보탐색과정(ISP)에 의한 스캐폴딩 전략 모형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1), 143-165.
- 정진수 (2014) 국내 사서교사 교육활동의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25(1), 153-171.
-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2007).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 (2011). 도서관과 정보생활. 서울: 미래엔.
- 함명식 (2008).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과 사서교사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169-188.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g, Jin-Soo (2014). A study on the levels of the instructional activities by Korean teacher-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153-171.
- Hahm, Myung-Sik (2008). A study on the ‘information and the library’ curriculum and the roles of teacher-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169-188.
- Kang, Bong-Suk (2018). A case-study on school library educational services to reduce the information literacy gap due to the education ga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307-329.
- Kim, Sung-Jun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271-292.
- Korea Library Association School Library Education Curriculum Committee (2007).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Subject Curriculum Standards*.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Korea School Library Associ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Compilation Committee. (2011). *High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Seoul: Mirae N.
- Lee, Byeong-Ki (2005). A study on the integration strategies of school library into school’s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2), 98-100.
- Lee, Byeong-Ki (2007). An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nd library assisted instruction considering national level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443-462.
- Lee, Byeong-Ki (2019).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curriculum revision based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2), 49-68.
- Lee, Soon-Young, Choi, Suk-Ki, Kim, Ju-Hwan, Seo, Heok, & Park, Young-Min (2015). *The Theory of Reading Education*. Seoul: Sahoipyunglon.
- Lim, Jeong-Hoon (2023). Development of Scaffolding Strategies Model by Information Search Process(IS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1), 143-165.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ersed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7). Compilation Guide of Textbook Development for 2015 Reversed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Park, Ju-Hyeon, Kang, Bong-Suk, & Lee, Byeong-Kee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content structure for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1), 229-254.

So, Byoung-Moon (202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tent components in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4), 25-44.

So, Byoung-Moon & Song, Gi-Ho (2018) An analysi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in Korean schoo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55-75.

Song, Gi-Ho (2011). An altern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information literacy as cross curricula under the national curriculum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29-50.

Yuk, Keun-Lock et al. (2015). *Integrated Society*. Seoul: Dong-A press.